삼립

안전보건경영 정책

1. 개요

삼립은 '건강하고 행복한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식품회사로서, 모든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임직원과 고객의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정책을 선언합니다. 본 정책은 삼립의 안전 로드맵을 실현하는 최상위 행동 지침이자, 현장에서 나 자신과 동료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삼립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슬로건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

권리와 책임: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있다.

안전문화 구축: 우리는 임직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안전문화를 구축한다.

안전한 사업장: 우리는 안전보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업장에서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든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삼립의 국내외 모든 사업장 및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나아가 우리 제품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본 정책에 동참하도록 독려합니다. 우리는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안전 파트너십을 맺고, 모두의 안전보건 권리와 책임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안전한 사업장을 지향합니다.

[실행 방안]

삼립은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슬로건 아래,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지속가치를 보장합니다. 우리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고 개선하는 관리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나아갑니다.

① 리더의 책임과 실천: 경영진과 관리자는 안전을 경영의 핵심으로 삼고, 현장 임직원이 안전 수칙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주도하고 솔선수범 합니다.

② 위험관리 체계: 현장의 관리자, 근로자 및 협력업체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듭니다.

③ 소통과 신뢰 구축: 건강하고 행복한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근로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진정성 있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노사가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근로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누구나 규칙을 지키는 믿음직한 안전 문화를 만듭니다.

④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비상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고,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업중지 등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임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응 능력을 갖춥니다.

삼립의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충실히 이행하여, 중대재해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이 되어야 합니다. 법규 및 요구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리 수준이 현장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이 되는 안전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문화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으로 연계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안전문화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2. 추진체계(거버넌스)

[의사결정 및 책임 체계]

삼립은 대표이사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 공동체를 구축하고 각자가 맡은 역할과 업무에 책임을 갖는 안전 경영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진정성 있는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실현합니다.

① 대표이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최종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② 안전경영실장: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며, 이사회 보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 운영을 지원합니다.

③ 안전보건기획팀: 안전보건 전담조직으로, 전사 안전 정책을 기획하고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실무를 지원합니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로, 현장의 유해 요인을 미리 살피고 개선하는 활동이 사업장 전반에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관련 법규와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와 함께 현장의 실행력을 높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 전반을 총괄합니다.

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현장의 작업 환경과 작업 방식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지도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관련 기준과 절차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감독자와 협력하여 안전한 작업 방법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돕습니다.

⑥ 관리감독자: 담당 작업장의 위험 요인을 상시로 살피고, 근로자 교육과 현장 안전 수칙이 작업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이끕니다. 안전의 실행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바탕으로, 작업 현장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구성원과 함께 안전을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고 개선으로 연결합니다.

⑦ 근로자: 근로자는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주체로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절대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키고, 위험성 평가 등 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실무 협력 및 소통 기구]

삼립은 상장회사로서 고객과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경영을 바탕으로, 현장의 위험 요인을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경영진과 실무자,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합니다.

① 이사회: 매년 1분기에 연간 안전보건 계획을 승인합니다. 분기 1회 정기 보고를 통해 전사 재해율, 사고 실적 및 안전보건 업무 현황을 심의 및 감독합니다. 사내·외 이사는 이를 바탕으로 안전 경영의 방향성을 제안하며, 중대 리스크 대응 및 핵심 투자 안건을 최종 심의합니다.

② 안전경영회의: 대표이사, 안전경영실장, 생산본부장, 센터장 및 안전보건관계부서가 참여하는 안전 경영 회의체입니다. 매월 재해율과 사고 원인 분석, 개선 이행 현황, 근로자 의견 등 주요 안전 이슈를 중심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③ 노사 안전보건 협의체: 노사와 외부 안전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입니다.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근로자(노동조합)의 의견을 직접 청취합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을 더해 노사가 합동으로 현장을 정밀 점검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이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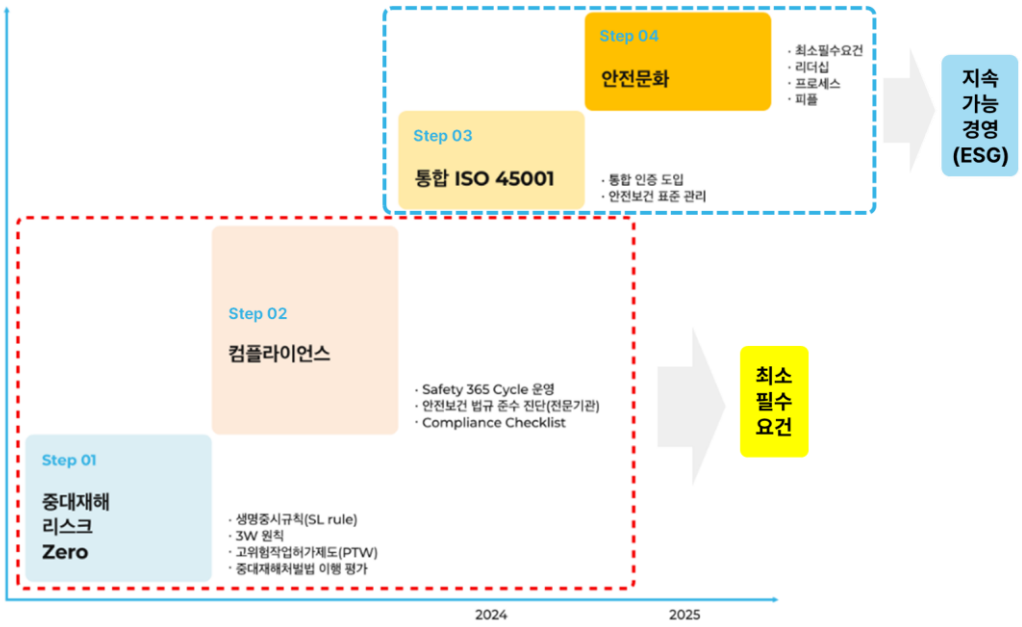
④ 노사 안전보건 간담회: 생산센터장과 근로자가 직접 대화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현장의 안전 고충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 경영진이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상호 신뢰 기반의 안전 문화를 조성합니다.

⑤ 기타(안전소통 채널): 단체 안전보건 소통방 등 생산센터의 누구나 위험 요인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안전보건경영

[삼립 안전 로드맵]

삼립은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안전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삼립은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통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고,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가치와 기준 아래 안전관리를 이행합니다. 이 같은 안전관리는 법규와 요구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법규 준수가 자리 잡은 사업장은 각 현장에 맞는 규칙과 제도를 통해 중대재해 Zero를 실현해 나갑니다.



✓ Step 1. 중대재해 리스크 Zero: 절대안전수칙과 근로자 건강 3대 원칙(3W)을 현장에 정착시켜 사고 원인을 제거합니다. 위험한 작업은 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고,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 Step 2. 컴플라이언스: 법과 요구사항, 즉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립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법과 요구사항을 기본 기준으로 삼아,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이를 빠짐없이 실천합니다.

- ✓ Step 3. 통합 ISO45001: 사업장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ISO 45001로 통합 인증 받고 운영 역량을 내실화 하여, 모든 현장이 동일한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 Step 4. 안전문화: 리더십, 프로세스, 인적 자원이 조화를 이루는 안전 공동체를 구축하여 안전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인식합니다.

삼립은 위 4 단계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연도별 핵심 실행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2027년	2028년
1. 위험성평가 체계 고도화 2. 화재피해 예방 인프라 구축 3. TBM 및 작업허가제 운영 체계 개선 4. 통합 안전보건 전산화 개발 5. 기계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1. 통합 안전보건 전산화 운영 2. 안전문화 성숙도 평가 프로그램 도입 3. 안전보건 AI, 스마트안전 등 신기술 도입	1. 전 사업장 안전문화 성숙도 3단계 달성 2. 기계 안전 관리 시스템 정착

[Step 1. 중대재해 리스크 Zero]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삼립은 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구체적인 방침을 기반으로 체계를 운영합니다.

권리와 책임: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있다.
안전문화 구축: 우리는 임직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안전문화를 구축한다.
안전한 사업장: 우리는 안전보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업장에서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든다.



삼립은 무재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규 100% 준수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의 지속적 유지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안전보건 조직

삼립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보좌 역할을 독려하고자 생산센터 산하에 안전보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수준 향상을 직접 이끌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성과평가지표(KPI)를 운영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이행하고, 경영진 주도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내 일에 책임을 갖는' 실천 중심의 안전경영을 강화해 나갑니다.

③ 절대안전수칙 및 3W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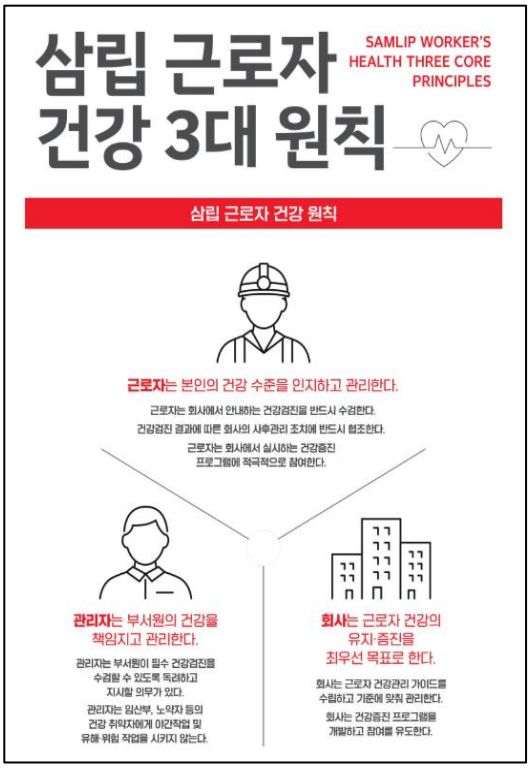
삼립은 임직원, 협력업체, 방문객, 이웃 및 고객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위험을 식별, 전달 및 관리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할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안전을 핵심가치로 삼아 모든 사람이 매일 안전하게 집에 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삼립은 사고 분석과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번이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행동들을 "절대안전수칙"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 자신, 동료 및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개인에게 부여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안전 프로그램 및 일상 업무를 부상 없이 수행하는 것에 필수적입니다.

근로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비로소 안전한 일터와 행복한 가정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일상 속 작은 부주의가 만성 질환이나 심각한 건강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삼립 근로자 건강 3대 원칙(3W)'을 제정하였습니다.

- Worker: 근로자가 건강을 스스로 관리
- Workplace: 관리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업무를 배정
- Wellness: 회사가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근로자 건강을 적극 지원





④ 화재 안전

삼립은 소방시설 유지 관리 강화, 취약구역 개선 및 정기 비상훈련 등을 통해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함으로써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삼립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및 진압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율 소방 체계를 공고히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화재안전진단과 자체 현장 밀착 점검을 실시하여 소방 역량을 강화합니다.

⑤ 작업허가제도

삼립은 전자결재 시스템 기반의 작업허가제도(PTW: Permit to Wor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화기, 밀폐, 고소 작업 등 8대 고위험 작업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사전 작업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합니다.

⑥ 현장 유해·위험요인 관리(위험성평가)

삼립은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기 위해 빈도·강도법, JSA(작업안전분석) 기반의 위험성평가를 상시 운영합니다. 또한 현장의 계절적·공정별 특성을 고려한 취약 요인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2개월 주기의 'Theme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각 사업장은 자신의 작업 환경과 공정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주도적으로 적용하고, 발굴된 잠재 리스크를 즉시 개선함으로써 현장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는 자율적 안전 관리를 실천합니다.

⑦ 건강증진 프로그램

삼립은 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여, 예방 중심의 다각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삼립 3W원칙을 바탕으로 자발적 참여 기반의 건강 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뇌심혈관질환 등 직업성 질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신체와 마음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활기찬 조직 환경을 실천합니다.

[Step 2. Compliance(법규 준수)]

① Safety 365 Cycle

삼립의 안전관리는 새로운 기술이나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야 할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과정에서 출발합니다. 이에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들이 일상 업무 속에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도록 'SAFETY 365 Cycle'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업무 수행과 안전 점검,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PDCA(계획–실행–점검–조치) 사이클을 통해 안전보건 교육, 건강검진, 위험기계 점검 등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빈틈없이 이행합니다.

② 안전보건 법규 준수 진단

삼립은 1·2·3자 진단으로 구성된 3단계 점검 체계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관리합니다. 법, 내부 규정, 고객 요구사항 중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현장에 지속적으로 반영합니다.

③ 안전보건교육

삼립은 임직원, 협력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계획 수립 시 임직원 의견 청취를 통해 현장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 수요 매트릭스로 구조화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에 따른 교육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교육 관리 체계를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업무 및 작업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Step 3. 통합 ISO 45001]

① 통합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삼립은 통합 ISO 45001 인증을 통해 사업장 별 격차를 줄이고, 상향 평준화된 관리 체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로 체계화된 통합 표준 문서를 기반으로 전 사업장이 단일화된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모든 위험 요소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기동성 있는 안전 경영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② 전사 안전보건 표준 관리

삼립은 외부 규제 환경 변화를 표준 문서에 반영하여, 전 사업장이 동일한 지침에 기반한 상위 표준화된 안전보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표준 문서는 1개 매뉴얼, 15개 절차서, 38개 지침서로 구성되며, 매뉴얼·절차서는 공통 적용하고 지침과 하부 작업절차서는 공통 기준 범위 내에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성과평가(KPI) 및 피드백

삼립은 매년 경영목표 검토를 통해 안전보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핵심성과지표(KPI)로 도출하며, 지속적인 개선 성과를 업무수행평가와 연계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특히 KPI 체계를 경영진부터 관리감독자 계층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전 사업장의 책임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의 자발적인 위험 개선과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한 실행 동력을 확보합니다.

④ 스마트 안전보건

삼립은 중대재해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설비 및 공정을 중심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에 투자를 집중합니다. 인공지능(AI) 및 IoT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 영역의 불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안전보건 업무 전산화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중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합니다.

[Step 4. 안전문화]

① 안전보건 리더십

삼립은 경영진부터 근로자까지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스스로 위험을 찾아 예방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리더 교육을 통해 관리자가 앞장서고, 안전 수칙을 지키는 책임을 분명히 하여 안전 경영을 확실히 실천합니다. 또한 위험을 발견하면 누구나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하여, 모든 구성원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안전 문화를 실천합니다.

② 안전문화 활동

삼립은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업무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도록 매년 안전문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직의 안전보건 인식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층별·사업장별 안전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고, 안전문화 구축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운영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당연한 업무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③ 참여형 소통 및 신뢰 기반 보고 문화

삼립은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임직원의 주체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각적인 안전보건 소통 채널을 운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안전 경영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개선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자율 안전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합니다.

4. 안전보건 파트너십

[대외협력]

삼립은 안전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민관협의체, 외부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외부 기관의 전문성과 위험성 평가 경험을 공유받아 전사의 안전보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도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삼립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안전 가치를 공유하고 투명하게 소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전 경영 신뢰를 구축합니다.

① 투자자: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안전 성과를 창출하고 최상의 안전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대내외적 신뢰 관계를 확고히 유지합니다.

② 정부 및 유관기관: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내외 법령 및 표준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고용노동부, 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인 지도를 수용하고, 법규 준수 실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안전 경영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③ 임직원: 절대안전수칙 및 안전 정책을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의 안전 인식을 개선합니다. 안전 소식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일상 속에서 안전 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④ 협력사: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안전 정보 공유와 기술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협력사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동반 성장을 실현합니다.

⑤ 지역사회: 지자체 및 민관협의체와 소통하며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하고 지역사회의 고충을 적극 해결합니다. 특히 지역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실천합니다.

5. 부칙

본 안전보건 경영정책은 2026. 06. 02부로 제정하여 시행합니다.